

일주문



생명나눔희망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2일 오후 2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늘푸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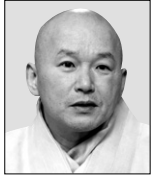
제9회 오대산문화축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0월 19-21일 월정사 일대에서 제9회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033)339-6800



다라니정진 1주년 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9월 10일 경내 임시법당에서 '천수다라니 3년 대정진 기도' 1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세계 문화유산 탐방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 일환으로 9월 8일, 안동 하회마을을 탐방한다.



숲속힐링 - 패밀리 선데이
보은 법주사 주지 현주 스님은 매일 셋째주 일요일 '법주사 숲속 힐링 - 패밀리 선데이'를 개최한다. (043)543-3615



천년술향 산사음악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13일 '천년술향 고운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54)833-2324



YB윤도현밴드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6일 봉화 청량사 경내에서 YB윤도현밴드 초청 2012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54)672-1446



아미타48대원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9월 12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48대원 기도에 입재한다. (02)732-2115

<화축> 최상철·김경희의 장남 최호승 법보신문 기자와 송재하·김민숙의 차녀 송지희 법보신문 기자는 9월 15일 오후 1시 부산 농심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화축을 밝힌다. (051)553-1199

<화축> 민성진 윤암김성숙선생기념사협회 회장의 장녀 민근하 양은 9월 16일 오후 2시 50분 부천 소풍컨벤션웨딩홀 6층 컨벤션홀에서 화축을 올린다. (032)624-7777

“빨리 대장경 완역까지 심 없이 정진”

‘이따뽕따까’ 등 부처님 직설 관련 경장 완역한 전재성 박사



“경전 번역은 우리 문화를 담고 또 초등학생도 읽을 정도로 쉬워야 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초기경전 보급을 위해 빨리 대장경 완역까지 심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내용을 빨리어(梵語)로 기록해놓은 초기불전 ‘이따뽕따까’를 완역한 한국불교리서전협회장 전재성(55) 박사(사진)는 9월 4일 “빨리 대장경 완역을 위해 심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따뽕따까’는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경장(經藏) 다섯 가지 부(部:니까야) 중 ‘쿳다까니까야’ (小部) 일부로 ‘이와 같이 말해진 것’이란 뜻을 지녀 <여시어경>으로도 불린다. 짧은 산문 이야기에 계승됨을 결집한 112개 경들로 구성되었다. ‘이따뽕따까’는 산문부분에 ‘디까니까야’ 뿐만 아니라 ‘앙굿따라니까야’, ‘쌍윳따니까야’ 등에서 인용된 부분이 나와 다른 경전보다 후대인 BC 4세기 경 제2결집에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 박사는 6개월 간 ‘이따뽕따까’ 번역을 진행했다. 특히 여시어경의석(如是語經義釋)에 기초해 1617개의 상세한 주석까지 모두 번역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한 칼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전재성 박사는 쿳다까니까야에 속하는 ‘범구경’ (2008), ‘숫타니파타’ (2004), ‘우다나’ (2009)에 이어 ‘이따뽕따까’를 완역함으로써 경장 중 부처님이 직설한 대부분을 완역했다. 사부니까야 완역은 세계 최초로 독일 노이만과 미국 비구보다 스님만이 사부니까야 중 이부니까야를 완역한 상태.
전 박사는 “신기하게도 ‘니까야’ 번역 과정이 번역자들의 건강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번역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번역에 있어 초등학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말과 우리 문화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그 예시로 하늘님을 들었다. 전 박사는 “기독교의 하느님도 우리 고유의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용어”라며 “불교의 비전을 하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초기불전을 보면 부처가 매우 쉬운 일상의 언어로 설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문 번역으로 인해 수행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현대인들의 언어감각에 맞게 계속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성 박사는 서울대를 나와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82-1989년 독일 본 대학에서 인도티베트학을 공부했다. 1997년부터 한국불교리서전협회장을 맡아 초기불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권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법민화 한 박광서 대표



“의무적으로 볼 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하 종자연)은 탄탄한 조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재가연대 산하단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서강대 교수·사진)는 사단법인 전환의 의미를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법민화를 함으로서 공신력을 갖고 한국 사회에 종교인권의 뿌리를 공고히 내리겠다는 것이다.
종자연은 9월 8일 장충동 만해 NGO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의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교인권을 다루는 유일한 법민단체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최근 종자연은 개신교계와 마찰을 겪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인권 관련 연구 사업을 수주한 게 문제가 됐다. 불교계 단체가 개신교를 사찰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법민화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게 되면 이 같은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민화를 하면 가장 먼저 재정 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이 150명이 되지만,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로서 아직 인원이 부족합니다. 회원 영입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정관이 확정되면서의 걸구조도 변했습니다. 그간 몇몇 활동가 위주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이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자연은 향후 교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을 영입하고 정책 자문단을 확대해 조직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저간의 갈등은 종교인권을 뿌리 내리는데 필요한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민화가 됐지만 종자연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종교인권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적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축구로 불자 교류”

‘제1회 만다라배 불교 축구대회’ 이동격 FC부터 초대 회장



9월 15일 열리는 불자 축구 동호인들을 위한 제1회 만다라배 불자축구대회 개최를 앞두고 이동격 FC부터 초대 회장(본사 부장·사진)은 “이번 불자 축구대회는 축구동호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FC부터 주관 하에 총지드래곤즈(불교총지종 축구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등 승승을 넘나드는 8개 팀이 출전한다.
이동격 회장은 “이번 대회는 불교계 동호인들이 함께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에 참가하지 못한 동호회를 위해 내년 대회는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회를 주최한 불교총지종에 대해 감사인사를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일불선교종 9대 총무원장 경원 스님

전 종도 결집대회로 화합과 재도약 다짐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9월 5일 인천라마다송도호텔 연회장에서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용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전 종도 결집대회를 겸하여 종도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장으로 함께 진행됐다.
3세 종정 무학, 원로의장 지공, 원로부회장 해천 등 종단 원로를 비롯하여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삼론종 총무원장 진봉,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일불문도회 회장 의륜, 인천 불교연합회 회장 일초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등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경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종도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에서는 경남교구총무원 승원 스님의 종도다짐과 중앙총회회장 법선 스님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승원 스님 외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했다. (02)991-8175
노덕현 기자

백중 맞아 연평도서 위령제 열려

연평도 연평부대 호국사(주지 영범)는 9월 2일 백중 7일기도 회향 이후 연평도 포격 순직장병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하사 서정우, 일병 문광우 등의 영가가 모셔졌으며 연평부대와 서울 철보사, 강릉 죽도암 등에서 십시일반 후원한 떡과 과일, 과자 등이 영단에 올려졌다.
위령제에는 박정환 연평부대 부대장을 비롯해 부대 부서 간부, 해병, 해군 장병 1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에 대한 넋을 기리고 당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며 나라지키기를 서원했다. 호국사 주지 영범 스님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 5도 장병들이 보다 국토수호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타종 체험 행사 확대 개최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의 타종 체험 확대를 기념해 9월 3일 정각관 경영부총장, 박정국 학술부총장, 강태원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 정각원장 법타 스님 등과 함께 직접 2학기 개강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정각원은 2010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종행사를 벌이고 있다. 매일 정오 학내 범종각에서 교수와 학생, 행정부서 직원 등 다양한 그룹별로 직접 타종행사를 해왔다.
동국대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은 “그동안 각 행정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종 체험행사를 개최했는데 학내외의 반응이 좋아 이를 교수와 학생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